

배포 일시	2022. 5. 23.(월)		
담당 부서 <총괄>	교통물류실 첨단자동차과	책임자	과 장 박문수 (044-201-3847)
		담당자	사무관 오영석 (044-201-3851)
보도일시	2022년 5월 24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5. 24.(화) 00:00 이후 보도 가능		

‘국민 체감형’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가 가까워집니다 - 오토노머스에이투지·아이티텔레콤 컨소시엄 최종 사업자 선정

(앞으로는) 제주를 찾는 여행객에게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마련된다. 제주 공항에 도착하면 공항-중문호텔 간 자율주행 캐리어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무거운 여행 짐을 먼저 호텔에 보낸 뒤, 제주공항 인근의 주요 관광 거점을 연계하는 순환형 자율주행 관광셔틀 서비스로 제주 해변의 아름다움을 만끽한다. 관광을 마치면 자율차를 이용하여 중문호텔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착할 수 있다.

-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가 이르면 10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이를 통해 자율차 상용화 시대가 우리 눈 앞에 성큼 다가왔음을 실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을 공모하여 5월 24일 오토노머스에이투지와 아이티텔레콤이 주관하는 컨소시엄(연합체)을 각각 최종사업자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공모사업은 민간의 자율차 기반의 모빌리티 프로젝트에 대해 2년간 80억 원(1·2차년도 각 4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 체감형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새싹기업(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게 자율주행 실증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이번 2차 공모에는 총 7개의 컨소시엄이 참여했으며, 사업모델의 혁신성, 서비스에 적용되는 기술의 실현가능성, 자율차 서비스의 대국민 수용성 제고효과 등 다양한 지표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였다.
- * 1차 사업지원(시흥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심야셔틀” 서비스, 서울대 산학협력단, '20~'21년, 70억)을 통해 자율차 제작(7대) 및 교통취약지역에 서비스 운영으로 1,900명 이상의 시민에게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

□ 사업자로 선정된 2개 컨소시엄의 주요 서비스를 살펴보면,

- 먼저,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컨소시엄*은 대구 테크노폴리스와 국가 산업단지를 배경으로 여객(수요응답형)·물류(배송서비스)를 통합 서비스 할 수 있는 차량 플랫폼 및 관련 통신 인프라 기반을 마련하고,

* (참여업체) 카카오모빌리티, KT, 현대오트모터, 뉴빌리티, 한국자동차연구원

- 아이티텔레콤 컨소시엄*은 제주공항 인근의 주요 관광 거점을 연계하는 순환형 자율주행 관광셔틀 서비스, 공항-중문호텔 간 캐리어 배송 서비스, 대중교통 셔틀버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 (참여업체) 라이드플렉스, 광명 D&C, KAIST, 제주연구원

□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기관은 보조금을 통해 자율차를 제작하고 서비스 대상지역에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하여 사업을 운영한다.

- 사업기간 동안 총 11대 내외의 레벨3 자율차(아이오닉, 쏘라티 등)가 제작·운영될 예정이며, 기본적으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돌발상황 발생 등에 대비하여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안전요원이 탑승한 상태에서 운행된다.

- 사업과정에서 제작된 자율차는 사업 종료 시 국가가 환수하여 각종 시험운행, 데이터 수집 등의 용도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에 대여하는 등 지속적인 모빌리티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 이달 중 국토교통부와 컨소시엄 간 구체적인 사업계획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6월부터 자율차 제작 및 인프라 구축에 돌입할 계획이다.
- 올해 하반기에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시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국민들께서 한층 안정적인 자율차 모빌리티서비스를 체험함으로써 자율차 상용화 시대가 우리 눈 앞에 성큼 다가왔음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 “국토부는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 되어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법·제도적 규제 개선, 인프라 고도화, 기술개발 지원 등의 정책적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율주행차 정의

-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주변상황과 도로 정보 등을 자체적으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

* 자율주행차 주요 인지센서

- (카메라) 촬영 영상으로 외부 물체의 정보(사물종류, 색깔 등)를 판독
- (라이다) 레이저로 주변 물체의 3차원 형상(점군영상) 인지(고정밀·고가)
- (레이더) 초음파로 주변 물체와의 상대속도, 거리 등을 주로 측정(정밀도 낮음)

□ 자율주행 기술단계(레벨3부터 자율주행차로 분류)

* 美자동차공학회(SAE)의 분류, 국제기준회의체(UN/ECE/WP.29)도 동 분류 준용

< 운전자동화의 단계적 구분 >

레벨 구분	Lv.0	Lv.1	Lv.2	Lv.3	Lv.4	Lv.5
명칭	無 자율주행 (No Automation)	운전자 지원 (Driver Assistance)	부분 자동화 (Partial Automation)	조건부 자동화 (Conditional Automation)	고도 자동화 (High Automation)	완전 자동화 (Full Automation)
운전주시	항시 필수	항시 필수	항시 필수 (조향핸들을 상시 잡고 있어야 함)	시스템 요청시 (조향핸들을 잡을 필요 X,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운전)	작동구간 내 불필요 (비상시에도 시스템이 대응)	전 구간 불필요
자동화 구간	-	특정구간	특정구간	특정구간 (예 :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등)	특정구간	전 구간
예시	사각지대 경고	조향 또는 감가속 중 하나	조향 및 감가속 동시작동	고속도로 혼잡구간 주행지원시스템	지역(Local) 무인택시	운전자 없는 완전자율주행

※ 「자율차법」은 레벨3을 ‘부분 자율차’, 레벨4~5를 ‘완전 자율차’로 구분